

엘니뇨 영향으로 설탕 생산량 250만톤에 그칠 것



□ 주요내용

- 엘니뇨에 따른 기후변화로 올해 인도네시아 설탕 생산량이 당초 목표인 290만톤을 하회하는 25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.
-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엘니뇨 현상이 사탕수수 작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. 농업부 상품작물국의 나시르 국장은 “올해 설탕 생산이 ‘약간 침체’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국내 설탕 재고는 100만톤에 불과하다”고 밝혔다.
- 국영 제당기업(PG BUMN)은 올해 설탕 생산량 목표를 200만톤으로 설정했다. 이는 올해 국내 설탕 수요량인 3백만 톤의 65%에 해당하는 규모다.
- 한편 국제 설탕 기구(ISO)는 원당가격이 엘니뇨 영향으로 2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 엘니뇨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해 설탕 생산 부족이 심각해 지리라 전망했다. ISO는 2015~2016 년도 글로벌 생산이 수요보다 502만 톤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.
- 엘니뇨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은 물론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태국에서도 지난해 말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다.

□ 시사점

-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생산기술 낙후와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또한 인도네시아는 주변 국가로부터 원당을 수입하고 있어 원당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설탕 가격 상승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출처 : Jakarta Biz Weekly